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국내 ICT 산업의 추세상 특징과 시사점
-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ICT 재도약이 시급하다

# 목 차

---

- 국내 ICT 산업의 추세상 특징과 시사점
  -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ICT 재도약이 시급하다

Executive Summary .....	i
1. 문제제기 .....	1
2. 우리나라 ICT 산업의 추세 점검 .....	3
3. 시사점 .....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백  흥  기   이   사   대   우   (2072-6228, hkback@hri.co.kr)

정   책   조   사   실   :   이   장   균   수   석   연   구   위   원   (2072-6231, john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요약 >

■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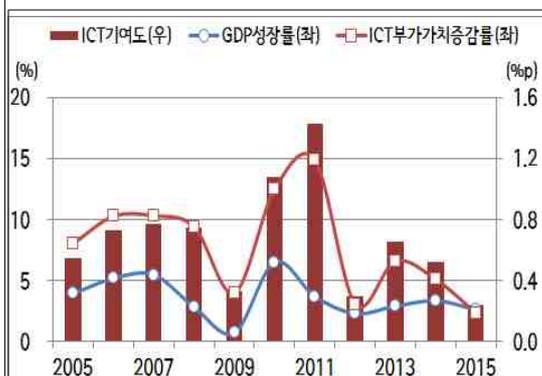
우리나라 ICT 산업은 총부가가치 비중 (2013년 기준 10.7%)이 OECD내 가장 높은 국가일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2위 일본 7.02%, 3위 아일랜드, OECD 평균 5.5%)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트렌드로 기술과 경제에 ICT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ICT 산업은 몇해 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ICT산업의 동기간 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부가가치 -5.9%p, 설비투자 -3.5%p, 그리고 수출 -15.6%p 등 모두 하락했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해야 할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ICT 산업의 주요 부문을 점검하여 추세상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언한다.

■ 우리나라 ICT 산업의 추세 점검

첫째, (투자) ICT 설비투자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ICT 산업의 설비투자(부가가치 기준)는 2008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5.3%에서 2012년~2015년 1.8%로 떨어졌다. 반면에 ICT 해외직접투자는 2012~2015년 누적 기준으로 이전 4개년(2008~2011년)과 비교해 보면 46.9% 급증했다.

둘째, (기술개발) ICT R&D와 인당 R&D는 확대되는 반면에 기술무역 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2012~2015년간 국가 ICT R&D(IT투자 기준) 예산은 이전 4년간에 비해 38.5%로 크게 늘었으며, ICT 1인당 R&D도 거의 매년 늘고 있다. 반면, ICT 산업의 기술무역적자는 2009~11년 109.5억 달러에서 2012~14년 128.7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전 산업의 기술무역적자에서 ICT 비중은 62.1%에서 77.0%로 대폭 늘었다.

< ICT 산업 기여도 >



< ICT 산업 실적 (평균증감률) >

구 분	부가가치	설비투자	수 출
2008~11	10.2%	5.3%	17.7%
2012~15	4.3%	1.8%	2.1%
차 이	-5.9%p	-3.5%p	-15.6%p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셋째, (생산) ICT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 ICT 생산은 2011년에 한자리 수 증가로 급락했으며, 2015년부터는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 비중(42%)이 높은 부품을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감소율이 높았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연평균증감률의 차이가 ICT 전체는 -7.8%p, 기기는 -9.5%p, 소프트웨어는 -6.1%p, 서비스는 -0.8%p로 나타났다.

넷째, (무역)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연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8.1%p (11.8% → 3.7%) 줄어든 반면, 수입은 1.9%p(3.5% → 5.4%) 증가했다. 2011년 1,0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9~2011년과 2012~2014년으로 나눠 ICT 제품의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해 수출 경쟁력 변화를 점검해 보면, 아직은 경쟁 우위에 있지만 지수 하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고용) ICT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인당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2012~2015년 동안 연평균 ICT 인력은 0.9% 증가로 미미했으며, 이전 4개년(2008~2011년)에 2.2%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약화되었다. ICT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고용 탄성치는 2012년부터 1 이하인 비탄력적 상황을 보이면서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있다. 2012~2015년 평균 인당 생산성(부가가치 기준)도 이전 4년간과 비교해 기기, 서비스, 소프트웨어 전 부문에서 소폭 하락했다.

여섯째, (기업 실적) 최근 매출액 증감률이 급락하고 있다. 2008년~2012년(2011년 제외) 두자리 수 성장을 해왔던 매출은 2014년 -4.7%, 2015년 1.4%, 2016년 3/4분기 -9.5%로 극히 부진한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2015년 평균 매출액증감률(3.9%)은 이전 4개년 실적보다 9.4%p 하락했다.

## ■ 시사점

첫째, ICT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산업구조로 혁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ICT 르네상스' 대책을 수립한다

둘째,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해서 ICT R&D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셋째, 신제품, 신기술 진입이 활발한 시장 환경을 적극 조성해 '마켓 풀'(market pull) 혁신을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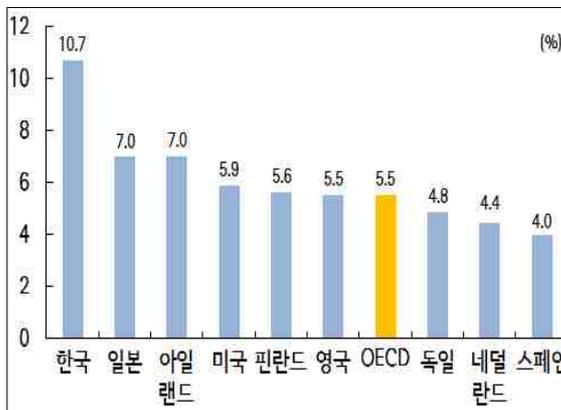
넷째, IoT화 진전을 기회로 ICT 업종의 '글로벌 시장 - 시장 자립형' 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ICT 서비스업을 조기에 육성, 발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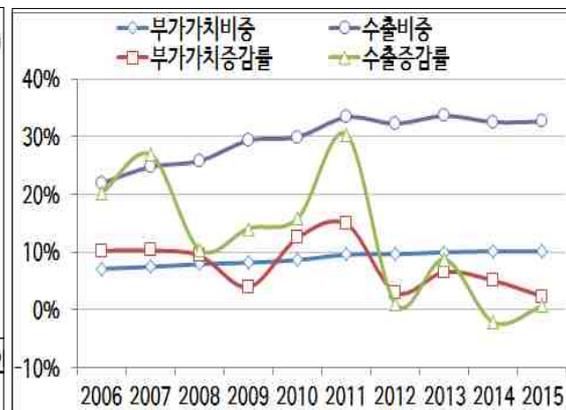
## 1. 문제제기

- 제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에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도는 점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ICT 산업은 몇해 전부터 하락세가 완연
- 제4차 산업혁명에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ICT는 전체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ICT는 증기엔진과 같이 전산업에 영향을 주는 교차 횡단적 기술(Cross-Cutting technology)이며, 생산성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하는 범용 기술(general-purpose technology)<sup>1)</sup>로 평가
  -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ICT는 물리학적, 생물학적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한국은 ICT산업 의존도가 아주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하락세가 뚜렷
  -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OECD 중 총부가가치에서 ICT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10.7%로서 가장 높은 국가 (2위 일본 7.02%, OECD 5.5%)
  - 그런데 최근 ICT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한자리수(2015년 2.3%)로 떨어졌고, ICT 수출 증감률은 2014년 -2.1%, 2015년 0.7% 등 약세를 지속

< 총부가가치의 ICT 비중 (2013년) >



< ICT 산업 비중 및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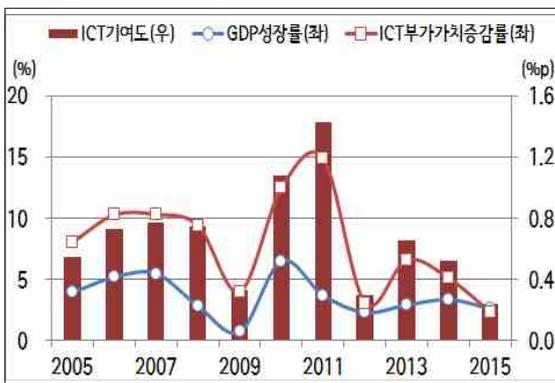


자료 :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 일본, 아일랜드, 영국, 독일, 스페인은 2012년 적용. 주 1) GDP 대비 비중, 전년대비증감률. 2) 수출은 재화수출.

1) Bresnahan T, Trajtenberg M,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Engines of growth", Journal of Econometrics, 1995.

-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ICT산업의 부가가치,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성장률 기여도가 감소
- ICT 산업의 성장률 기여도는 2011년 1.42%p였다가 2012년 0.30%p로 급락했으며, 2013년 0.66%p로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그후 하락 추세
-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국민계정 항목의 실적 차이(동기간 평균증감률)를 비교해 보면, 부가가치 -5.9%p, 설비투자 -3.5%p, 그리고 수출 -15.6%p 등 모두 하락

< 국민계정 ICT 산업 기여도 >



< 국민계정 ICT 산업 실적 비교 >

구분	부가가치	설비투자	수출
2008~11	10.2%	5.3%	17.7%
2012~15	4.3%	1.8%	2.1%
차이	-5.9%p	-3.5%p	-15.6%p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 실적은 동기간 전년 대비 증감률의 평균을 의미.

○ 본 연구는 제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해야 할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ICT 산업의 주요 부문을 점검하여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분석 항목: 투자(설비투자, 해외직접투자), R&D(규모, 인당규모, 기술무역), 생산, 무역(수출규모, 수출점유율, 수출경쟁력), 고용(규모, 인당생산성), 기업 실적을 점검 지표로 선정
- ICT 업종 범위: 전자부품, 컴퓨터 등 ICT 기기(제조)와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ICT 서비스업을 분석 대상에 포함
  - 단, 무역 실적은 ICT 기기만 대상으로 삼음
- 분석 방식: 2008~2011년과 2012~2015년으로 나눠 실적 변화(차이)를 비교해 추세상 특징을 도출

## 2. 우리나라 ICT 산업의 추세 점검

### ○ (투자) ICT 설비투자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급증

- (설비투자) 2012~15년 평균증가율이 1.8%(2008~11년 5.3%)로 급감했으며,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
  - ICT산업 설비투자(부가가치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 2011년부터 40조~43조원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역성장으로 전환
  - 2008년~2011년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 5.3%에서 2012년~2015년 1.8%로 하락
- (해외직접투자) ICT 해외직접투자는 2012~2015년 누적 기준으로 이전 4개년과 비교해 46.9% 급증
  - ICT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부터 2013년의 일시 급증(전년비 +121%)을 제외하면 약 20억 달러를 유지하다가 2015년 14억 달러로 축소하는 추세
  - 2008~11년과 2012~15년 4개년간의 해외직접투자액을 비교하면 ICT 제조업은 50.9% 증가, ICT 서비스업은 23.8% 증가하여 전체 ICT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46.9% 증가

< ICT 부문 설비투자 (부가가치) >



< ICT 산업 해외직접투자 >

연도	'12~'15 비중	'08~'11 vs '12~'15 증감률
합계	100%	46.9%
ICT 제조업	87.4%	50.9%
ICT 서비스업	12.6%	23.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 ICT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 ICT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 / 통신장비 도매업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 장비 임대업 / 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수리업(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통신장비).

○ (기술개발) ICT R&D와 인당 R&D 규모는 확대되는 반면, 기술무역 적자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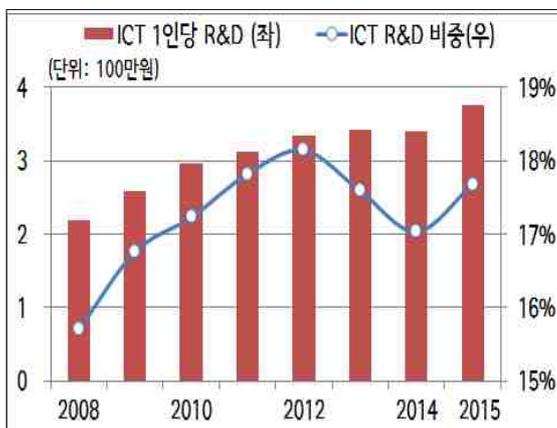
- (R&D) R&D 규모와 인당 R&D 규모는 증가세 지속

- 국가 ICT R&D 예산은 2015년 3.3조원으로 국가R&D예산의 17.7% 비중
- 동 비중은 2009년부터 약 17%~1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액 규모는 2009년 2조원대, 2014년 3조원대 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 ICT의 2012~2015년 R&D 규모는 이전(2008~2011) 4년간 합계에 비해 38.5%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는 국가 R&D 33.5%보다 높은 증가율
- ICT 1인당 R&D도 2008년 220만원에서 거의 매년 늘어나 2015년 380만원에 이름

- (기술무역) ICT 산업의 기술무역적자는 2009~11년 109.5억 달러에서 2012~14년 128.7억 달러로 확대

- 2009~11년과 2012~14년 3개년간 전산업 기술수출액에서 ICT 산업 비중은 66.4%에서 63.2%로 줄어든 반면 기술도입액은 63.8%에서 69.1%로 확대
- 전산업 기술무역적자에서 ICT 산업 비중은 2009~11년 62.1%에서 2012~14년 77.0%로 크게 확대

< ICT R&D: 1인당 R&D, 비중 >



< ICT R&D 및 기술무역 >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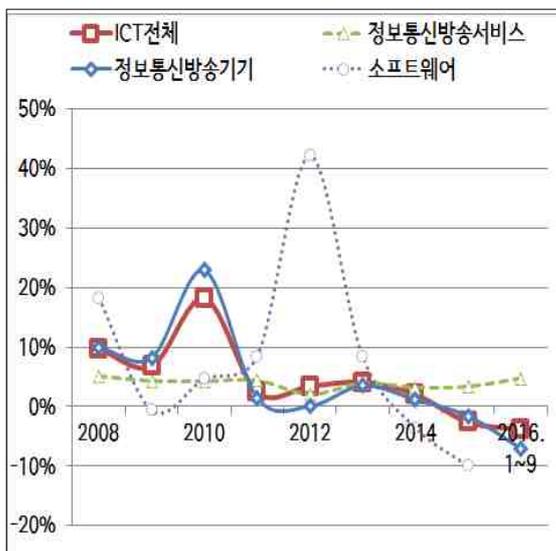
구 분	2009~11	2012~14	차이
ICT 기술 무역 수지	-109.5 (62.1%)	-128.7 (77.0%)	-19.2 (14.9%p)
기술수출	72.8 (66.4%)	138.5 (63.2%)	65.7 (-3.2%p)
기술도입	182.2 (63.8%)	267.1 (69.1%)	84.9 (5.4%p)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R&D사업관리와 기술무역통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ICT 인력동향실태조사,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해 HRI 산출.

- 1) 국가R&D사업의 6T별 투자현황 가운데 IT 투자현황 기준.
- 2) ICT 인력은 정보통신방송 기기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종의 상시 근로자 기준.
- 3) 기술무역 관련 ICT 산업에는 전기전자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포함.
- 4) 우측 표의 괄호안 수치는 전산업 기술무역실적에서 ICT 산업의 비중을 의미.

- (생산) ICT산업 생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기기, 소프트웨어 부문이 높은 감소세를 시현
- ICT 산업 생산은 2011년 2.4% 성장으로 급락한 이후 2%~4%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다가 2015년에 역성장으로 추세 전환
  - 하위 업종중 정보통신서비스만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방송기기는 최근 1~2년 사이에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
  - 생산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방송기기는 2010년(+22.9%), 2013년(+3.5%) 단기 급등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
- 생산 비중(42%)이 높은 부품을 비롯한 기기 부문의 감소율이 높으며, 중요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또한 감소율이 높은 추세
  -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평균 비중 차이와 연평균증감률의 차이를 비교
  - 비중 차이는 기기 -1.9%p, 서비스 -0.7%p, 소프트웨어 2.3%로 동기간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음
  - 반면에 연평균증감률 차이는 ICT 전체 -7.8%p, 기기 -9.5%p, 서비스 -0.8%p, 소프트웨어 -6.1%p로 기기 부문이 큰 폭으로 약화

< ICT 산업 생산 전년동기증감률 >



< ICT 산업 생산 실적 변화 >

구분	비중 ('12~'15)	차이(%p)	
		비중	증감률
ICT전체	100.0%	0.0	-7.8
기기	73.8%	-1.9	-9.5
통신기기	15.8%	-4.3	0.7
방송기기	3.4%	-0.6	-7.4
정보기기	2.4%	-0.3	-3.9
부품	42.0%	2.5	-16.1
응용기반기기	10.3%	0.8	-7.8
서비스	16.2%	-0.7	-0.8
통신서비스	10.1%	-1.8	-0.3
방송서비스	3.5%	0.6	4.5
방송통신융합	2.8%	0.6	-8.7
소프트웨어	9.7%	2.3	-6.1
패키지SW	1.6%	0.6	18.3
IT서비스	6.7%	0.2	-0.2
디지털콘텐츠	1.7%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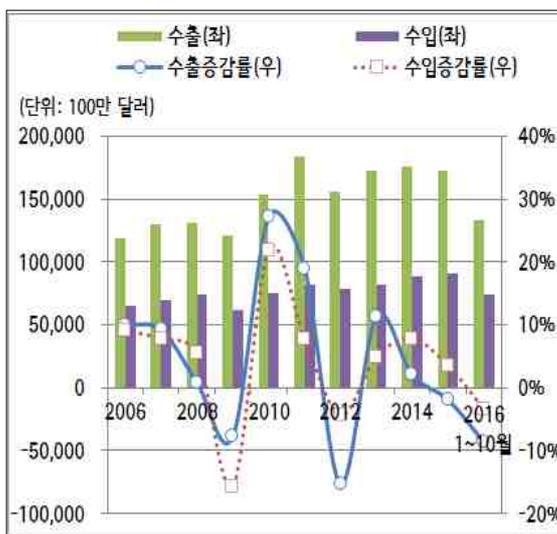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의 ITSTAT를 활용해 HRI 산출.

주 : '08~'11년과 '12~'15년 기준으로 동기간 비중 차이(%p)와 연평균 증감률 차이(%p) 산출.

○ (무역) 수출 증가율 및 수출 점유율이 하락하고, 수출경쟁력 약화가 뚜렷

- '수출증감률 감소 - 수입증감률 증가' 추세로 무역흑자가 줄어들고 있음
  - ICT 산업 수출은 몇해 전부터 수입보다 하락세가 더욱 커지면서, 2011년 1,017억 달러로서 1천달러대까지 치솟았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대폭 축소
  -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연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8.1%p(11.8% → 3.7%) 줄어든 반면, 수입은 1.9%p(3.5% → 5.4%) 증가
- 통신·방송 기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제품에서 수출 증감률이 두자릿수 하락
  -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ICT 기기 수출의 평균 비중 차이와 연평균증감률의 차이를 비교
  - 비중이 큰 두 제품 중 전자부품은 수출비중이 5.7%p 증가한 60.8%를 기록했고, 통신·방송 기기는 5.0%p 감소한 16.7%를 시현
  - 반면, 수출증감률에서는 전자부품은 -15.8%p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통신·방송 기기는 1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ICT 산업 무역 실적 추이 >



< ICT 산업 수출 실적 변화 >

구분	'12~'15년 수출비중	차이(%p)	
		비중	증감률
ICT전체	100%	0.0	-8.1
정보통신기기	87.7%	-2.6	-7.1
전자부품	60.8%	5.7	-15.8
컴퓨터·주변기기	4.3%	-1.4	-0.6
통신·방송기기	16.7%	-5.0	15.5
영상·음향기기	5.4%	-1.4	-18.0
응용, 기반 기기	12.3%	2.6	-17.4
의료정밀광학	4.8%	2.2	-21.5
가정용 기기	2.9%	-0.2	-11.8
사무용 기기	0.3%	-0.1	-11.9
전기장비	4.5%	0.7	-23.4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ITSTAT를 활용해 HRI 산출.

주 : '08~'11년과 '12~'15년 기준으로 동기간 비중 차이(%p)와 연평균 증감률 차이(%p) 산출.

- 수출점유율: 전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소폭으로 하락
  - ICT 기기의 수출 시장점유율은 2009~2011년과 2012~2014년 3년간 비교 시 0.7%p 하락
  - 하위 기기의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반도체는 -0.1%p,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는 -0.7%p로 미미한 반면 통신기기는 -2.0%p로 크게 하락
  
- 수출경쟁력: 한국 ICT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약화 추세가 진행
  - 2009~2011년과 2012~2014년으로 나눠 ICT 제품의 평균적인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비교해 수출 경쟁력 변화를 점검
  - 무역특화지수: ICT 제품 전체와 하위 기기 모두 지수가 미미하나마 0을 상회하여 비교 우위를 유지
  - 동기간 무역특화지수 비교를 통해 보면 지수 변동이 없는 반도체를 제외한 통신기기, 컴퓨터는 지수 하락으로 경쟁 약화가 뚜렷
  - 현시비교우위지수: ICT 제품 전체와 통신기기, 반도체는 지수 2 이상으로 경쟁 우위에 있고 지수 0.914인 컴퓨터 기기는 열위로 전환
  - 동기간 현시비교우위지수 비교를 통해 보면 통신기기 -0.656p로 크게 하락했으며, ICT 전체 -0.236p, 컴퓨터 기기 -0.218p, 반도체 -0.015p 등 모두 기기에서 경쟁 약화세가 뚜렷

< ICT 제품의 무역 경쟁력 추이 >

	수출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09~'11 평균	'12~'14 평균	차이 (%p)	'09~'11 평균	'12~'14 평균	차이 (p)	'09~'11 평균	'12~'14 평균	차이 (p)
ICT 합계	7.7%	7.0%	-0.7	0.050	0.040	-0.010	2.576	2.339	-0.236
통신기기	9.8%	7.9%	-2.0	0.028	0.020	-0.008	3.295	2.639	-0.656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3.4%	2.7%	-0.7	0.005	0.002	-0.003	1.131	0.914	-0.218
반도체	9.7%	9.6%	-0.1	0.017	0.017	0.000	3.237	3.222	-0.015

자료 : WTO의 Statistics Database, 미국 NSF의 S&E Indicators를 활용해 HRI 산출.

주 1) 무역특화지수: 0보다 크면 비교 우위, 0보다 작으면 비교 열위로 해석.

2) 현시비교우위지수: 1보다 크면 경쟁 우위, 1보다 작으면 경쟁 열위로 해석.

○ (고용) ICT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인당 생산성이 하락

- ICT 산업 인력 증가는 크게 둔화

- ICT 산업 인력은 2012~2015년 평균 87만 7천명이며, 이중 기기 부문이 65.1%, 서비스가 17.1%, 소프트웨어가 17.8% 차지
- 2012~2015년 동안 연평균 ICT 인력 증가율이 0.9%에 불과했으며, 이전 4개년(2008~2011년)에 동 비율이 2.2%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둔화

- ICT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크게 약화

- ICT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고용 탄성치(=취업자 증가율<sup>2</sup>/생산액증가율)가 2011년 2.72였던 것이 2012년부터 1 이하로 급락
- 고용 탄성치가 1이하인 비탄력적 상황을 보이면서 ICT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ICT 기기, 서비스, 소프트웨어 모두 인당 생산성(부가가치 기준)이 하락

- ICT 산업의 인당 생산성(= 부가가치/종사자수)은 2010년 2.14억원에서 2014년 1.58억원으로 축소
- 2012~2015년 동안 평균 인당 생산성은 이전 4개년(2008~2011년)과 비교해 ICT 기기, ICT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전 부문에서 소폭 하락

< ICT산업 종사자 추이 >

< ICT 인당 생산성 >

구분	비중 '12~'15	연평균증감률 (%)		구분	'09~'11	'12~'14	차이
		'08~'11	'12~'15				
ICT전체	100	2.2	0.9	ICT전체	1.92	1.83	-0.09
기기	65.1	2.6	0.7	기기	1.71	1.66	-0.05
서비스	17.1	2.6	-0.8	서비스	2.32	2.23	-0.09
소프트웨어	17.8	0.5	3.3	소프트웨어	0.67	0.52	-0.16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ICT 인력동향실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  
태조사. 해 HRI 산출.

주 : 동기간 연평균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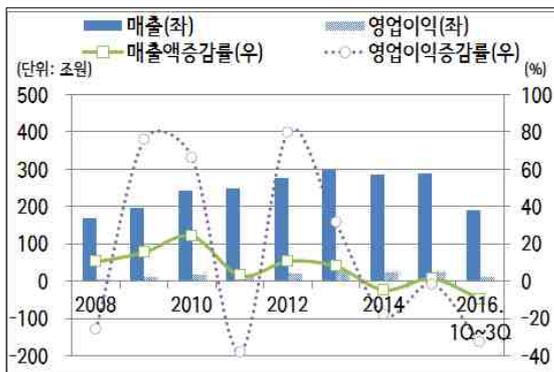
주 : 인당 생산성은 동기간 평균의 ICT 산업 부가가치를 종사자수로 나눠 산출.

2) ICT산업 취업자는 상시근로자(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기준.

○ (기업 실적) 매출액증감률은 급락, 영업이익증감률은 유지

- 국내 ICT 업체의 2012~2015년 4개년 매출은 이전 4개년보다 34.2% 증가, 영업이익은 94.0% 증가 추세를 시현
  - MKF2000 IT 업종<sup>3)</sup>을 기준으로 2008~2011년과 2012~2015년 4개년간의 평균 실적을 통해 매출, 영업이익을 비교
  - 매출은 동기간 34.2% 증가한 데 비해 영업이익은 94.0%로 크게 증가해 성장성보다 수익성이 크게 제고
- 그러나, 최근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감률이 하락하면서 2012~2015년간 평균 매출증감률 (3.9%)은 이전 4개년에 비해 9.4%p 하락
  - 2008년부터 2012년까지(2011년 제외) 두자리 수 성장을 해왔던 매출은 2013년 8.0%로 내려간 후 2014년 -4.7%, 2015년 1.4%, 2016년 3/4분기 -9.5%를 나타내면서 극히 부진한 추세가 지속
  - 영업이익 또한 2014년 -17.9%, 2015년 -1.6%로 2년 연속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2016년 3/4분기에는 32.8%나 대폭 감소
  - 다만 2012~2015년간 평균 영업이익증감률은 22.9%로서 이전 4개년에 비해 3.3%p 늘어나 수익성은 현상 유지

< ICT 업체의 매출, 영업이익 추이 >



< ICT 업체 경영실적 >

(단위: 조원)

	2008~11 평균	2012~15 평균	증감률
매출액	214.5	287.9	34.2%
매출액 증감률	13.3%	3.9%	-
영업이익	12.8	24.9	94.0%
영업이익 증감률	19.6%	22.9%	-

자료 : FnGuide, MKF2000 IT업종 실적을 활용해 HRI 산출.

주 1) IT업종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포함.

2) 좌측 그래프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의미. 단 2016.1Q~3Q는 2015년 동기간 실적 대비 증감률임.

3) -매일경제신문과 FnGuide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보통주를 구성해 개발한 지수. 단, 일부 '상장기간이 3개월 미만인 종목',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상장폐지 확정 종목' 등은 제외.

-MKF2000 IT업종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 포함.

### 3. 시사점

-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ICT 산업을 재도약하지 않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음**
  - 제4차산업혁명을 맞이해 ICT 산업 자체 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ICT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플랫폼 기반 사업 전개로 이행중
  - 이에 따라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전업종에 걸쳐 글로벌 선도업체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따라서 ICT 산업 환경을 다각도로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을 선도,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
  
- **첫째, ICT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산업구조로 혁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ICT 르네상스' 대책을 수립한다**
  - ICT 산업을 조기에 고부가화, 경쟁력 향상을 실현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서 ICT 활용을 촉진하는 'ICT 르네상스' 정책 과제를 수립
  -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제조 부문을 적극 활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한 ICT 산업과 전통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개발
  - 정책 영역으로서 R&D를 비롯해 시장 개발 및 활성화, 기업 지원(특히 벤처 활성화)인력 양성, 법적·세제적 지원책을 종합 고려
  
- **둘째,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해서 ICT R&D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 경제적,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대형 국책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국내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
  - 특히 현재 시장이 보이지 않거나 시장 형성이 초기에 해당하는 차세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목표를 두고 정부, 민간기업, 학계, 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예: 과거 TDx, CDMA, Wibro 등)
  - 기술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대응책을 수립
  - 정부, 학계, 민간의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참여해 연구개발부터 제조, 유통을 아우르는 생태계 형성을 촉진

- 셋째, 신제품, 신기술 진입이 활발한 시장 환경을 적극 조성해 ‘마켓 풀’(market pull) 혁신을 촉진한다
  - 지금까지의 ‘선 R&D - 후 시장개발’하는 기술 투입형 혁신보다 제품과 서비스 융합 제품 등 신제품이 조속히 시장에 진입해 선점 효과를 얻고, 수익 재투자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이른바 마켓 풀 혁신이 강조
  - ICT가 결합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제약받지 않도록 규제 프리(free) 또는 완화책을 적극 추진
  
- 넷째, IoT화 진전을 기회로 ICT 업종의 ‘글로벌 시장 - 시장 자립형’ 정책을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 IoT화로 ICT 비즈니스 시장은 내수라는 한계를 벗어나 더욱 글로벌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이런 트렌드에 맞춰 ICT 산업에 대한 정책 접근을 그동안 국내에 국한된 ‘내수 - 수요산업 의존형’에서 벗어나 ‘글로벌 - 시장 자립형’으로 전환
  - 특히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CT 서비스 산업을 디지털 관련 글로벌 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독자시장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
  - ICT 업종에서 독자 확보한 인력, 기술, 노하우가 여타 수요 산업으로 흘러들어갈 활용되는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추구
  
- 다섯째, ICT 서비스업을 조기에 육성, 발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 ICT 기반 서비스 기술은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차세대 제품 개발과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 지식집약형 서비스업(High-tech Knowledge-Intensive Services) 육성에 필수 요소
  - ICT를 활용한 서비스의 R&D 및 자금 지원, 목표 업종의 데이터 활용 및 시범 적용에 관한 협력 체계 형성을 지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2072-6231, johnlee@hri.co.kr)